

한-아세안(신남방)
스마트도시수출 거점HUB

Issue Paper

No.4(제 4 호)

2021. 3. 31

발행일 : 수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국제도시 및 인프라 연구센터]

담당자 E-mail : kkim019@uos.ac.kr

본 Issue Paper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을 받아 최근 한-아세안(신남방)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책, 사회, 경제, 도시, 기술 등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정리한 자료임.

GU& RC Issue Paper Contents

【기본연구】

- 스마트도시 기술 분석

【연구동향】

- 한-아세안(신남방)&스마트도시 동정

【GU& RC 활동】

1.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성과교류회
2.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알리미(2021.04)

이슈 요약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 분석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스마트도시 보유기술은 현재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개발 중인 최신의 서비스를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각 기관 및 업체들의 사용 용도에 따라 중복 된 기술을 포함하여 총 1,847개(중복 제외 시 1,044개)의 기술을 분석 함
-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보유기술과 지역·기업별 분석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도시수출 기술 선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수출 거점HUB 플랫폼이 실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세안 국가와 기관, 기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수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본연구] 스마트도시 기술 분석

1. 스마트도시 보유기술 분석

□ 기술 분야별 보유기술 분석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스마트도시 보유기술은 현재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개발 중인 최신의 서비스를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각 기관 및 업체들의 사용 용도에 따라 중복 된 기술을 포함하여 총 1,847개(중복 제외 시 1,044개)의 기술을 확인

〈표〉 기술 분야별 보유기술 현황

No.	기술 분야	스마트도시 기술(중복)		스마트도시 기술	
		(개수)	(%)	(개수)	(%)
1	건설	177	9.7	105	10.1
2	고용노동	18	1.0	10	1.0
3	공장	63	3.4	36	3.4
4	관광	18	1.0	8	0.8
5	교육	18	1.0	11	1.1
6	교통	250	13.6	133	12.7
7	그린·에너지	236	12.9	172	16.5
8	금융	40	2.2	18	1.7
9	농업	21	1.1	8	0.8
10	문화예술	18	1.0	10	1.0
11	물관리	73	4.0	44	4.2
12	물류	51	2.8	29	2.8
13	방법	185	10.1	90	8.6
14	방재	55	3.0	33	3.2
15	복지	19	1.0	12	1.1
16	비즈니스	175	9.5	90	8.6
17	시민참여	5	0.3	3	0.3
18	쓰레기 처리	35	1.9	17	1.6
19	의료·보건	117	6.4	64	6.1
20	전자정부	222	12.1	127	12.2
21	통신기술	38	2.0	24	2.2
합계		1,834	100.0	1,0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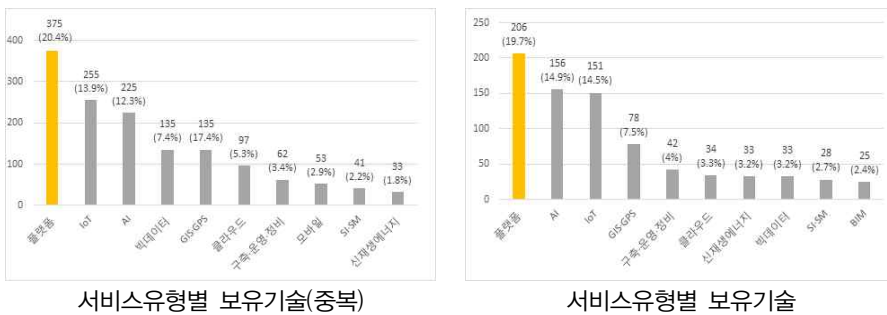
- 조사 된 1,847개의 기술을 21개의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보유 기술 중 가장 많은 곳을 교통 250개(13.5%)분야로 확인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그린·에너지 237개(12.8%), 전자정부 222개(12%), 방법 187개(10.1%), 건설 184개(10%) 순으로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복을 제외 한 스마트도시 기술로는 그린·에너지 172개(16.5%), 교통 133개(12.7%), 전자정부 127개(12.2%), 건설 105개(10.1%) 순으로 나타나 양쪽 모두에서 그린·에너지와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스마트도시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위 30%의 보유기술(중복 포함) 분야의 비율을 보면 교통과 그린·에너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자정부, 방법, 건설, 비즈니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특히 교통과 그린·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 국가에서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에서 지능형도방법시스템, 지능형주차시스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절약형 에코시티 등과 같은 스마트도시 기술들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한-아세안 협력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6개 국가에서 도시의 교통문제가 가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나(유애라, 2019), 향후 스마트도시 수출에서 교통과 그린·에너지 분야의 기술이 타 분야에 비해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림〉 스마트도시 보유기술 분야 상위 30% 비교

□ 서비스 유형별 보유기술 분석

- 서비스 유형별 보유기술은 스마트도시 기술에 사용된 IoT, AI, 플랫폼 등과 같은 서비스 유형을 총 39개로 나누어 분석
- 스마트도시 기술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유형은 플랫폼 375개(20.4%)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IoT 255개(13.9%), AI 225개(12.3%), 빅데이터 135개(7.4%), GIS·GPS 135개(7.4%), 클라우드 97개(5.3%), 구축·운영·정비 62개(3.4%), 모바일 53개(2.9%), SI·SM 41개(2.2%), 신재생에너지 33개(1.8%) 순으로 많은 기술들이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유형 중 플랫폼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이유로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이 2016년까지 통합 플랫폼 기반의 정보 연계를 추진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 인프라, ICT 인프라, 공간 정보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단계로 IoT,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복된 보유기술을 제외했을 경우 가장 많은 서비스유형으로는 플랫폼 206개(19.7%), AI 156개(14.9%), IoT 151개(14.5%), GIS·GPS 78개(7.5%), 구축·운영·정비 42개(4.0%), 클라우드 34개(3.3%), 신 재생에너지 33개(3.2%), 빅데이터 33개(3.2%) 순으로 앞서 중복된 보유기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또한 스마트도시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유형별 보유기술(중복 포함) 비율을 보면 플랫폼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IoT, AI가 높게 나타남
- 특히 플랫폼은 코리안돌레길 App, 태양광발전소관제시스템, 스마트 한전(전기요금 조회 및 납부), TRIUM-i(CCTV 영상통합관제 시스템),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시스템, 페이코(온오프라인 겸용 간편결제), HI-U Platform(건강관리 플랫폼), AI 마켓(AI 서비스 플랫폼), 클린시티네트워크스(CCN)(쓰레기 배출 분석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스마트도시 기술에서도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림〉 서비스유형별 보유기술 상위 10개 비교

〈표〉 서비스 유형별 보유기술 현황

No.	서비스유형	보유기술(중복)		보유기술	
		(개수)	(%)	(개수)	(%)
1	3D	15	0.8	10	1.0
2	AI	225	12.2	156	14.9
3	AR	12	0.7	4	0.4
4	BIM	25	1.4	25	2.4
5	CCTV	20	1.1	6	0.6
6	DRM	4	0.2	3	0.3
7	ESS	14	0.8	14	1.3
8	GIS·GPS	135	7.4	78	7.5
9	IoT	255	13.7	151	14.3
10	LTE·5G	31	1.7	13	1.2
11	MR	2	0.1	1	0.1
12	NFC	5	0.3	1	0.1
13	RFID	9	0.5	6	0.6
14	SI·SM	41	2.2	28	2.7
15	VR	12	0.7	5	0.5
16	건축·운영·정비	62	3.4	42	4.0
17	드론	13	0.7	8	0.8
18	디지털트윈	22	1.2	18	1.7
19	로봇	23	1.3	15	1.4
20	모듈	12	0.7	11	1.1
21	모듈러	4	0.2	4	0.4
22	모바일	53	2.9	11	1.1
23	블록체인	20	1.1	11	1.1
24	블루투스	11	0.6	3	0.3
25	빅데이터	135	7.4	33	3.2
26	생체인식	10	0.5	7	0.7
27	센서	22	1.2	9	0.9
28	수처리시스템	14	0.8	13	1.2
29	신재생에너지	33	1.8	33	3.2
30	옛지컴퓨팅	4	0.2	1	0.1
31	연료전지	9	0.5	8	0.8
32	자율주행	25	1.4	17	1.6
33	친환경상용차	12	0.7	12	1.1
34	컨설팅	27	1.5	23	2.2
35	콘텐츠	25	1.4	8	0.8
36	클라우드	97	5.3	34	3.3
37	키오스크	4	0.2	4	0.4
38	프로그램	17	0.9	12	1.1
39	플랫폼	375	20.3	206	19.6
	합계	1,834	100.0	1,044	100.0

2. 지역·기업별 보유기술 분석

□ 지역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스마트도시 보유기술과 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복을 제외 한 스마트도시 보유기술 1,044개와 스마트도시협회 및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¹⁾ 회원사를 포함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석

〈표〉 지역별 스마트도시 보유기술 및 기업 현황

지역	보유기술		기업	
	개 수(개)	비 율(%)	개 수(개)	비 율(%)
서울특별시	530	50.8	148	49.3
부산광역시	12	1.1	5	1.7
대구광역시	11	1.1	5	1.7
인천광역시	55	5.3	8	2.7
광주광역시	12	1.1	4	1.3
대전광역시	18	1.7	8	2.7
울산광역시	1	0.1	1	0.3
세종특별자치시	10	1.0	8	2.7
경기도	304	29.1	86	28.7
강원도	40	3.8	4	1.3
충청북도	1	0.1	1	0.3
충청남도	5	0.5	2	0.7
전라북도	11	1.1	5	1.7
전라남도	2	0.2	2	0.7
경상북도	18	1.7	6	2.0
경상남도	9	0.9	5	1.7
제주특별자치도	5	0.5	2	0.7
합계	1,044	100.0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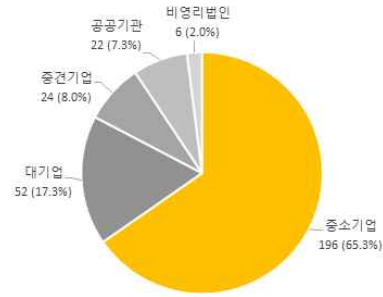
- 지역별 스마트도시 보유기술과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기술은 서울특별시 530개(50.8%)와 경기도 304개(29.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역시 서울특별시 148개(49.3%), 경기도 86개(28.7%)로 전체 3/4의 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스마트기술을 특화 시키는 “선택과 집중”에서는 장점을 보일 수 있으나, 향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 전략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업별 분석

- 기업별 분석에서는 스마트도시협회 및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규모, 자본금, 매출액, 연혁,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분석
- 국내 스마트도시 기업을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196개(6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기업 52개(17.3%), 중견기업 24개(8.0%), 공공기관 22개(7.3%), 비영리법인 6개(2.0%)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중소기업의 수가 많은 이유로는 개별 스마트도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규모별 기업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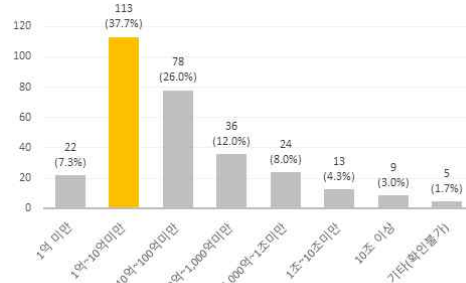
규모	기업	
	개 수(개)	비 율(%)
중소기업	196	65.3
중견기업	24	8.0
대기업	52	17.3
공공기관	22	7.3
비영리법인	6	2.0
합계	300	100.0



- 또한 자본금별로 분석한 결과 1억~10억 미만이 113개(37.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10억~100억 미만 78개(26.0%), 100억~1000억 미만 36개(12.0%), 1000억~1조 미만 24개(8.0%), 1억 미만 22개(7.3%), 1조~10조 미만 13개(4.3%), 10조 이상 9개(3.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자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 5개(1.7%)는 기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기업이 많은 것은 스마트도시 기술은 있지만 그만큼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중요

〈표〉 자본금별 기업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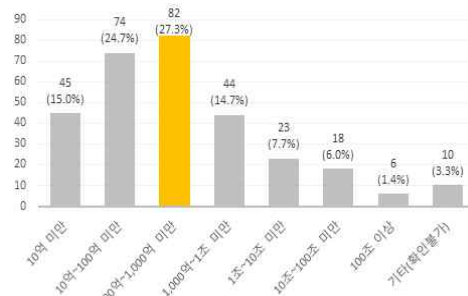
자본금(원)	기업	
	개 수(개)	비 율(%)
1억 미만	22	7.3
1억~10억 미만	113	37.7
10억~100억 미만	78	26.0
100억~1,000억 미만	36	12.0
1,000억~1조 미만	24	8.0
1조~10조 미만	13	4.3
10조 이상	9	3.0
기타(확인불가)	5	1.7
합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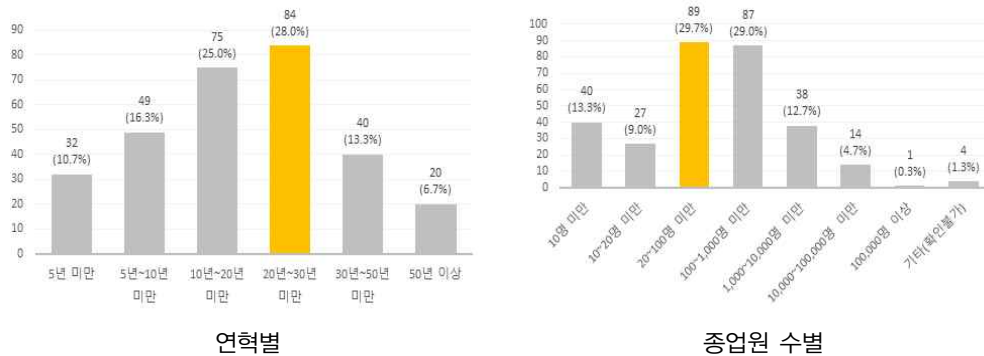
-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매출액별 분석한 결과에서는 100억~1,000억 미만이 82개(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100억 미만 74개(24.7%), 10억 미만 45개(15.0%), 1000억~1조 미만 44개(14.7%), 1조~10조 미만 23개(7.7%), 10조~100조 미만 18개(6.0%), 100조 이상 6개(1.4%) 순으로 나타남

〈표〉 매출액별 기업 수 및 비율

매출액(원)	기업 수	
	(개)	(%)
10억 미만	45	15.0
10억~100억 미만	74	24.7
100억~1,000억 미만	82	27.3
1,000억~1조 미만	44	14.7
1조~10조 미만	23	7.7
10조~100조 미만	18	6.0
100조 이상	6	1.4
기타(확인불가)	10	3.3
합계	300	100.0



- 연혁 및 종업원 수별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업의 연혁이 20년~30년 미만인 84개(2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10년~20년 미만 75개(25.0%), 5년~10년 미만 49개(16.3%), 30년~50년 미만 40개(13.3%), 5년 미만 32개(10.7%), 50년 이상 20개(6.7%) 순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약 48%가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스마트 도시 기술을 축적하여 기술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종업원 수에서는 20~100명 미만이 89개(2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1,000명 미만 87개(29.0%), 10명 미만 40개(13.3%), 1,000~10,000명 미만 38개(12.7%), 10~20명 미만 29개(9.0%), 10,000~100,000명 미만 14개(4.7%), 100,000명 이상 1개(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연혁 및 종업원 수별 기업 수 및 비율

[참고문헌]

- 김민주·정승현(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요소기술 분류 및 특성 분석 국내 3개 도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2), 459-462.
- 서창수·김연태·김성희(2020),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韓國都市行政學報 第33輯 第4號, 57-79.
- 이재용·이미영·이정찬·김익희(2018), “스마트도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임시영·사공호상·오창화(2018), “스마트도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참고사이트]

- 마켓앤마켓(2020), <https://www.marketsandmarkets.com/>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smartcity.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9), <https://www.fomek.or.kr/main/index.php>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8), <https://www.mckinsey.com/mgi/overview#>

1)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 이종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소통통로로서 기업간 기술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상호협력 추진 단계임. 모빌리티 헬스케어 환경 문화 거버넌스 등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 벤처기업 및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중심으로 구성(<https://smartcity.go.kr/>)

[연구동향] 한-아세안(신남방)&스마트도시 동정

1. 한-아세안(신남방) 동정

□ 코로나19 이후 신남방도 디지털 전환 박차...사이버보안·에듀테크·비대면 각광

- 2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남방 국가 모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행
- 베트남은 지난해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목,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스마트시티 수요가 증가. 핀테크, 에듀테크 수요 높고, 디지털정부, IoT, 스마트헬스 등을 유망야로 선정
- 출처: 전자신문(2021. 03. 29)(<https://m.etnews.com/20210329000061>)

□ 베트남 등 신남방 진출 민간기업 협력사례 활용방안 등 논의

-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제8차 전체회의 개최 '베트남 빈증전시장' 거점화 전략 공유
- 연합회 구자열 회장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박복영 위원장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연합회 소속 20개 협회, 단체 대표와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개소 현황과 향후 계획, 베트남 '빈증전시장' 운영사업 수주와 거점화 전략, 신남방지역 진출 민간기업 협력사례와 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출처: 코스인코리아닷컴(2021. 03. 31)(<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8798>)

□ 환경부, 신남방 ODA 착수...방글라데시-캄보디아 사업 진출

- 신남방·신북방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물 기초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로 물 시장 규모가 연간 4~7% 수준으로 지속 성장
- 방글라데시 스마트 물관리와 캄보디아-라오스 홍수대응 사업에 우리 환경부와 물기업들이 참여할 전망
- 출처: 뉴스핌(2021. 03. 31)(<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31000008>)

□ 환경부, 아시아 물시장 겨냥 물문제 해결 사업 지원계획 발표

- 제13차 아시아물위원회(AWC) 이사회에 참가하여 '2021년 워터프로젝트'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
- 신남방·신북방 회원국이 직접 제안하는 물 문제 해결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물 기반시설,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
- 출처: 물산업신문(2021. 04. 01)(<http://www.watermail.com>)

□ 한-아세안 데이터 영토 확장...정부, '오픈데이터 사전 개발' 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이달 5일 영상 회의를 통해 '한-ASEAN 오픈데이터 사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 향후 한국 측에서는 회원국별 데이터 현황(정책, 지표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정의·규격 등을 표준화·시각화한 'ASEAN 오픈데이터 사전'을 구축
-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세미나, 포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출처: IT비즈니스(2021. 04. 06)(<https://www.itbiznews.com>)

2. 스마트도시 동정

□ 국토교통부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만든다”

- 해외 정부·지자체, 국내 기업 대상 공모…6월 정부간(G2G) 협력사업 선정
- 해외 도시 11곳 선정 예정 …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우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해외 실증도 지원
- 출처: 국토교통부(2021. 02. 17)(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188)

□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로 도로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 도로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 - 지자체 협업’ 기반으로 지역 특색과 최신 스마트인프라를 담은 「스마트 복합쉼터」를 추진
-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에 1개소 당 20억원 국비 지원,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시설물과 지역 홍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 조성, 주도적 운영·관리
- 전기·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최신 스마트 기술 접목, 미려한 건축 디자인을 반영한 안락한 쉼 공간 마련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자체와 담당 도로관리청간 협의를 통해, 금년말 공사 착수
- 출처: 국토교통부(2021. 03. 01)(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241)

□ 국토교통부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

-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
- 출처: 국토교통부(2021. 03. 17)(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cmspage=1&id=95085303)

□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시티, 산·학·연·관 융합이 필수

- 스마트도시건축학회 한만희 회장은 “스마트시티는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첨단 ICT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도시 인프라나 행정시스템이 이에 맞게 개선되지 않아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따라서 ICT 발전추세에 맞게 도시 인프라의 개선도 앞당기고 행정역량도 키워야 하며, 주어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ICT 기능을 도입하고 도시관리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공학저널(2021. 03. 22)(<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

□ 스마트시티의 성공,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이 핵심

- 기존 기술 기반의 통신 인프라구축, 유럽의 지자체장들에 의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의 시대를 넘어 이제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 또한 지능형 AI-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는 지능화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도시운영은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지향
- 출처: 공학저널(2021. 03. 24)(<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

[센터활동] 스마트도시 관련 GU&I RC 활동 소개

1.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성과교류회 개최 안내

□ 행사개요

- (추진목적)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소 간 우수성과 공유 및 사업관리 Know-how 교류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일시/장소) '21. 3. 25.(목) 13:30~,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자) 인문사회연구소 전략적지역연구형 참여연구자(7개 연구소)
※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연구소별로 1명만 참여

□ 주요내용

- (세션-1)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정보 교류
 - * ① 신북방·신남방 관련 정부정책 연계 사례 등 대표성과 ② With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해외지역연구 활동의 다양화 방안 등
- (세션-2) 연구소간 연계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토론
 - (주제①) 정부·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업무 협력 방안
 - (주제②) 대국민 성과확산 다양화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 구축 등

□ 행사일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 13:30	-	▪ 등록	-
13:30 ~ 13:40	10'	▪ 인사말씀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장
13:40 ~ 15:25	105'	▪ (세션-1) 주요 연구성과 발표(7개 연구소)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15:25 ~ 16:00	35'	▪ (세션-2) 연구소간 연계 강화를 위한 토론	-
16:00 ~	-	▪ 폐회	-

- * (발표순서) ①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경희대), ② 동아연구소(서강대), ③ 한국-시베리아센터(배재대), ④ 동남아연구소(전북대), ⑤ 중동연구소(한국외대), ⑥ 도시과학연구원(서울시립대), ⑦ 몽골연구소(단국대)

2.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알리미(2021.04)

인문사회연구소 알리미(4차) 2021.4.



■ 2021년 봄 소식 보내드립니다.

- ☑ 교육부와 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는 지난 1월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합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월 28일(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설명회는 코로나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개요 및 중점 추진 방향, 개인연구집단연구인문학대중화평가제도 등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 설명회 자료 및 다시보기 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0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실시한 2020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개선 추진 결과를 별첨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바, 2021년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4월 경) 후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내용은 본 소식지 메일에 별도 PDF 파일로 첨부하여 송부

■ 2021년 연차보고서 제출 사전 안내

- ☑ 2021년 보고서 제출기한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 ※ 보고서 양식은 4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e메일 안내 예정

보고서 유형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방법
1년차 연차보고서	'20년 선정 20개 연구소	2021. 6. 30.(수) 18:00	e-R&D 시스템 탑재
2년차 연차보고서	'19년 선정 74개 연구소		

■ 전략적지역연구형 성과교류회 개최 결과 안내

- ☑ 일시/장소: '21. 3. 25.(목) / Webex 화상회의
- ☑ 대상: '19, '20년 선정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전략적지역연구형 수행연구소(7개)
- ☑ 내용: 주요 연구성과 발표 및 정보 교류, 연구소간 연계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토론
- ☑ 결과: ① 정부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대국민 성과 확산 방법에 대한 사업수행 Know-how 교류
② 향후 선정되는 연구소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가이드 등 제작 예정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사업문의: 이현우(042-869-6132, lhwo203@nrf.re.kr), 정해경(042-869-6137, jhkee@nrf.re.kr)

전산문의: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연구정산팀(042-869-7788)

2020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사업개선 추진 결과 안내

1. 연구소의 조기안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신청관련 FAQ 및 접수매뉴얼 등을 사전 제작 후 공고 시 제공 • (선정) 전년대비 최종선정 발표일정 단축('19.9.9 → '20.8.31) • (교육) 사업관련 행정사항 안내('20.9), 코로나 관련 연구비 가이드 제공('20.2 '20.9), 신규과제 O.T 실시(사업관리/우수사례/연구윤리 및 연구비 교육, '20.9), 연구윤리 위반 사례집 제작 및 배포('20.11) • (컨설팅) 신규과제 현장점검 시 사업관리 컨설팅 실시('19.12~'20.2)
------	---

2. 연구소 간 정보교류 및 성과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 예산 확보(연 150백만원) ⇒ 연구소 간 교류 및 협력지원, 정부정책 및 지역사회 연계, 성과발표회 개최, SNS 등을 통한 사업 홍보 등의 활동 예정
------	---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지방소재기관 할당제 적용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일률적인 지방소재기관 할당제(50% 이상을 지방으로 선정) 적용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오류 발생 ⇒ ('20) 지역별 신청과제 수를 고려한 할당제 실시 ※ ('20) 신청과제 수: 수도권 137, 지방 90 / 선정과제 수: 수도권 12, 지방 8
------	--

4. 전임연구인력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건비 현실화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연구인력 일자리 확대 및 인건비 인상을 위한 '21년도 예산 확보 ⇒ ('20) 年 200백만원 이내 → ('21) 年 260백만원 이내 • 연구소당 의무채용 인원 확대: 과제당 2명 이상 → 3명 이상 • 전임연구인력 최저임금' 인상: (기준) 年 3,300만원 → ('21) 年 4,000만원 <p>• 기관부담금 10% 지원 금액 포함 ※ 위 내용은 '21년도 신규/계속과제부터 적용</p>
------	---

5. 연구소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전담인력 지원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지원 단가 증액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간접비 증액분(年 약 1,000만원)을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활용 ⇒ 연구소당 1명씩 의무 지원(근로형태 및 인건비 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p>※ 위 내용은 '21년도 신규/계속과제부터 적용</p>
------	---